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의 개발 연구

김영원 · 신동윤 · 김정호 · 최대성 · 임미경 · 이경로 · 송정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Development of the Two Step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

Kim Young-Won, Shin Dong-Yoon, Kim Jeong-Ho, Choi Dae-Sung,

Lim Mi-Kyung, Lee Kyung-Lo, Song Jeong-Mo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

1. Objectives

The Sasang Constitution has been studied in many parts and one of the most common inquiries is the self-reporting questionnaire. But the established investigation has the problem that the respondents are not fully aware of the questionnaires and answer them. To settle this problem, it's been made new questionnaires through two steps.

2. Methods

At first step, the testers are classified into Yangin(陽人) and Eumin(陰人). And then, Taeyangin is distinguished from Soyangin likewise Taeumin is told from Soeumin. It's called 'The Two Step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TS-QSCD)'. This new method is tested by 160 testers and Woosuk university students whose constitution are confirmed to make clear clinical uses.

3. Results and Conclusions

Questionnaire Sasang Constitution corresponds with The Real Sasang Constitution at the rate of 71.87%. Only 5.63% has shown an error at the first step. Every experimenters by constitutions, the 56 objects of 74 Taeumin are confirmed the same as it is. It has 84.85% accuracy. The 27 objects of 32 Soeumin come to the same thing and it has 69.23% accuracy. Similarly, the 32 objects of 42 Soyangin come to the same conclusion and 72.73% accuracy high. As the result, in comparison to the Real Constitution with the Constitution by questionnaires, the accord comes out Kappa Indices 0.6427866. This result is comparatively high. Chi-square Test can be shown statistical meaning as well.

Key words : TS-QSCD, Sasang Constitution, Self-reporting Questionnaire

I. 緒 論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은 『東醫壽世保元』에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恒心, 體質證 및 體質病證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는데¹, 이러한 내용들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는 점에서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객관적 지표에 의한 체질진단 방법들이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 중의 하나이다.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지는 1987년 고 등²의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가 개발된 이후 사상체질분류검사(QSCC)³를 거쳐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4,5}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 의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

• 접수일 2006년 02월 24일; 승인일 2006년 03월 31일
• 교신저자 : 김영원
전주시 완산구 중화신동 2가 5번지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 +82-63-220-8415 Fax : +82-63-227-6234
E-mail : hayun012@hanmail.net

었고, 진단정확률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⁶. 이후 QSCC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보고 되었고, 이의 해결책으로 QSCCⅡ+^{7,9} 및 QSCCⅢ¹⁰ 등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연구된 문제점들은 대략 진단신뢰도에 관한 것, 설문 문항에 관한 것, 그리고 판별방법에 관한 것들인 것으로 제시되었고, 기타 태양인을 진단하는 어려움이나 설문 응답 시간이 너무 긴 것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¹¹.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설문 기법에 대한 것과 설문 문항에 대한 것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설문 기법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진단방법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연구는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다^{12,13}. 설문 문항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QSCCⅡ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¹⁴’,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의 Upgrade 연구(I)¹⁵’ 등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문항과 체질 판단에 유의미한 문항을 구분하고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신 등¹⁶은 ‘사상체질설문지 문항의 해석 및 적합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4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체질테스트 설문지를 만들어 통계 분석하였는데, 소음인과 소양인의 문항 응답에 있어서 체질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태음인의 경우는 문항별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았고, 소양인이 태양인 문항에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 볼 때 저자는 기존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응답에 있어 각 체질척도가 기대하는 만큼의 응답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응답자의 기준에서 볼 때 문항의 체질 간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한다면 상기의 문제점들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설문 기법과는 다른 방식인 2단계로 이루어진 설문지, 즉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陽人과 陰人을 가리는 문항들에 의해 陽人과 陰人을 분류한 다음, 두 번째 단

계에서는 陰人 중에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고, 陽人 중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을 가리는 방식이다.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단계별 설문방식 이므로 실제 해당되는 문항에만 응답하므로 응답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도 기대된다.

이에 저자는 새로 개발된 설문지인 TS-QSCD의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체질이 판정된 환자 및 우석대학교 재학생 등 160명에게 적용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TS-QSCD 開發過程 및 評價

1. 예비 설문지의 개발 및 평가

1) 예비 설문지의 제작

사상체질과 전문의와 전공의 집단의 매주 1회 총 8주 동안의 토의를 거쳐 예비설문지가 작성되었으며, ‘사상체질설문지 문항의 해석 및 적합성에 대한 연구¹⁶’를 통해 재정리된 문항을 다시 정리하고, 수정, 신설,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2) 예비 설문지의 적용 결과

기존에 발표된 설문지들이 태양인을 충분히 판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태양인 문항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등 예비설문지의 채점 방식을 정한 후 사상체질 전문의에 의해 체질이 이미 확인된 환자 및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직원들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태음인이 1단계에서 陽人으로 나오고 2단계에서 태양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소양인 여자가 1단계에서 陰人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태양인의 숫자가 의외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S-QSCD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 자료가 되었다.

2. TS-QSCD 개발

1) 문항 구성

(1) 1 단계(A문항) : 陽人과 陰人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총 22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2 단계(B, C문항) : 1 단계에서 陰人으로 가려진 사람 중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기 위한 문항(B

문항, 18 개)과 1단계에서 陽人(양인)으로 가려진 사람 중 소양인과 태양인을 가리기 위한 문항(C 문항, 10 개)으로 구성되었다.

(3) TS-QSCD 문항의 내용: 전체 50문항 중 體形氣像(체형기상)에 관한 내용 5문항, 容貌詞氣(용모사기)에 관한 내용 4문항, 恒心(항심)에 관한 내용 1문항, 性質材幹(성질재간) (심욕, 태도, 일처리, 대인관계 등)에 관한 내용 27문항, 病證(병증)에 관한 내용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2) 개발 과정 시 고려한 점

예비 설문지의 적용 결과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의를 거쳐 예비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하여 TS-QSCD의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며 작성하였다.

첫째, 『東醫壽世保元』원문의 해석이 실제 응답자가 이해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각 체질에 해당하는 문항의 표현이 적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토의 집단에 각 체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끌고루 참여시켜 토론하였다.

둘째, 응답자가 부정적인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다.

셋째, 1단계에서 陰人(음인)값과 陽人(양인)값의 점수차가 크지 않거나 동점인 경우 1단계에서 陰人(음인)값과 陽人(양인)값의 변별력이 높은 문제를 찾아 판정방법을 고안하여 이 판정방법을 통과한 경우만 2단계로 넘어가게 하였다.

다섯째, 태음인과 소음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 위주로 2단계 B문항을 구성하였고, 태양인과 소양인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 위주로 2단계 C문항을 구성하였다.

3) 예비 시험

환자 및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TS-QSCD를 적용해 본 결과 1단계 문항 중 A5, A15, A21 등 세 개의 문항이, 2단계 B 문항 중 B5, B7, B12 등 세 개의 문항이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단계 C문항에서는 태양인이 없었던 관계로 변별력 있는 문항을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서 찾은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은 TS-QSCD의 판정 방법에 이용되었다.

Table 1. The Constitution of TS-QSCD

신체적 요소	체형기상(體形氣像)	A19, B2, B12, B13, C5	
	용모사기(容貌詞氣)	A1, A2, A3, A4	
심성적 요소	항심(恒心)	A16	
	성질재간(性質材幹)	심욕, 감정특성	A13, A14, A15, A17, A20, A21, A22, B4, B7, B8, B15, C2, C3, C4, C8
		일처리와 장단점	A8, A9, C1
		대인관계	A7, A11
태도 및 행동특성	A5, A6, A10, A12, A18, B18, C10		
병증	한(汗)	B1, B6	
	희온냉(喜溫冷)	B11, B16	
	대소변(大小便)	C9	
	소증(素證)	B5, B9, B10, C6, C7	
	식사습관, 소화상태	B3, B14, B17	

표현하고자 했다.

셋째, 보기 문항의 배열이 일률적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패턴에 따른 의도적 답변을 피하게 하였

4) TS-QSCD의 체질 판정 방법

TS-QSCD에 의해 체질을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의 1단계 판정과 2단계 판정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1) 1단계 판정 방법

① 1단계 A문항 22개의 각 문항별 배점은 1점씩이며 陽人 합계 22점, 陰人 합계 22점으로 동점이다.

② 陽人和 陰人の 차가 클 경우는 다득점 쪽으로 결정한다. 이는 그 차이가 6점 이상인 경우이다. 6점이 기준이 된 근거는 예비 설문지 시험 결과 양인과 음인 문항 선택의 점수차가 6점 이상인 경우 실제 사상체질전문가의 판정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③ 陽人和 陰人の 차가 4 이하인 경우는 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 기준을 강화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가)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A5, A15, A21, 이하 동일) 중 3 문항이 모두 다득점(음 또는

(나) 세 문항 중 2 문제가 다득점 쪽과 동일한 경우 陽人은 A11, 陰人은 A6 문항의 답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하는 陽人 또는 陰人으로 확정한다.

(다)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오류로 처리한다. 오류로 처리 되면 TS-QSCD로는 더 이상 체질 진단이 안 됨을 뜻한다.

(라) 1단계에서 陰人으로 판정되면 2단계의 B문항으로 진행하고, 1단계에서 陽人으로 판정되면 2단계의 C문항으로 진행한다.

(2) 2단계 판정 방법

① 2단계 B문항 18개의 각 문항별 배점은 1점씩이며 태음인 합계 18점, 소음인 합계 18점으로 동점이다.

② 태음인과 소음인의 차이가 2 이상이 될 경우는 다득점 쪽으로 결정한다.

③ 태음인과 소음인의 점수가 같을 경우는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 B5, B7, B12 중 2 문

Table 2. Distribution of Sasangin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계
남성	46 (28.75%)	17 (10.63%)	23 (14.38%)	1 (0.63%)	87 (54.38%)
여성	34 (21.25%)	16 (10%)	23 (14.38%)	0 (0%)	73 (45.62%)
계	80 (50%)	33 (20.63%)	46 (28.75%)	1 (0.63%)	160 (100%)

Table 3. Distribution of Sasangin according Toage Categories

연령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계
20~29	51 (31.88%)	23 (14.38%)	27 (16.88%)	1 (0.63%)	102 (63.75%)
30~39	18 (11.25%)	6 (3.75%)	11 (6.88%)	0	35 (21.88%)
40~49	9 (5.63%)	4 (2.5%)	6 (3.75%)	0	19 (11.88%)
50~59	1 (0.63%)	0	1 (0.63%)	0	2 (1.25%)
60-69	1 (0.63%)	0	1 (0.63%)	0	2 (1.25%)
계	80 (50%)	33 (20.63%)	46 (28.75%)	1 (0.63%)	160 (100%)

양) 쪽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하는 쪽으로 확정한다.

제가 다득점(태음 또는 소음) 쪽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하는 체질로 확정한다.

④ 2단계 C문항 10개 중 태양인의 답이 6개 이상인 경우 태양인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소양인으로 확정한다.

3. TS-QSCD의 유용성 평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14일까지 우석대학교 학생,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의 외래,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상의학 전문의가 임상적 체질진단과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의한 판정결과가 일치된 160명에게 TS-QSCD를 작성하게 하였다.

TS-QSCD 작성 자료는 Excel (version10.0)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SPSS(version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상의학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판정한 체질(이하 실제 체질이라 한다)과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에 의하여 진단된 체질(이하 TS-QSCD 체질이라 한다) 사이의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치도 검정(Kappa Indi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문항의 변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hi-square 검정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P<0.05), 일치도 검정(kappa Indi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87명(54.38%), 여자가 73명(45.62%)이었고(Table 2), 연령분포는 20대~60대까지이며 평균연령은 31.5세였다. 20대에 63.75%인 102명으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것은 학생 집단에서 모집을 한 경우가 많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체질분포는 태음인 80명(50%), 소음인 33명(20.63%), 소양인 46명(28.75%), 태양인 1명(0.63%)이었다(Table 2, Table 3).

2) TS-QSCD의 체질과 실제 체질의 비교

사상의학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평가하여 체질을 판정한 실제 체질은 태음인 80명, 소음인 33명, 소양인 46명, 태양인 1명이다.

실제 체질과 체질을 비교해보면 태음인으로 진단된 대상자 80명 중 56명(70.00%)이 태음인으로 판정되었고, 소음인의 경우는 대상자 33명 중 27명(81.82%)이 소음인으로 판정되었고, 소양인의 경우는 대상자 46명 중 32명(69.57%)이 소양인으로 판정되었다. 태양인 1명은 TS-QSCD 판정에서 소양인에 포함되었다. 대상자 중 1단계에서 편별 방식을 통과하지 못하여 오류 처리된 대상자는 총 9명으로 이 중 태음인은 6명, 소양인은 3명이었다.

Table 4. The Comparison of Real Sasang Constitution and Questionnaire Sasang Constitution

		TS-QSCD의 체질					계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1단계 오류	
실 체 질	태음인	56 (70%)	7 (8.75%)	11 (13.75%)	0	6 (7.5%)	80 (100%)
	소음인	5 (15.15%)	27 (81.82%)	1 (3.03%)	0	0	33 (100%)
	소양인	5 (10.87%)	5 (10.87%)	32 (69.57%)	1 (2.17%)	3 (6.52%)	46 (100%)
	태양인	0	0	1 (100%)	0	0	1 (100%)
계		66 (41.25%)	39 (24.38%)	45 (28.13%)	1 (0.63%)	9 (5.63%)	160 (100%)

전체적으로 160명의 대상자 중 실제 체질과 TS-QSCD의 체질이 일치하는 경우가 115명으로 71.87%의 일치율을 보였고 5.63%의 1단계 오류를

보였다(Table 4).

3) TS-QSCD의 체질과 실제 체질의 일치도 검정 결과

실제 체질과 TS-QSCD의 체질을 비교해 보면 태음인 대상자 74명 중 56명이 TS-QSCD 판정 결과 태음인으로 판정되어 84.85%가 일치하였고, 소음인 대상자 33명 중 TS-QSCD 체질 27명이 동일하여 69.23%가 일치하였고, 소양인은 대상자 42명 중 TS-QSCD 체질 32명이 동일하여 72.73%가 일치하였다. 일치율은 태음인>소양인>소음인 순이었다.

일치도 검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던 태양인 대상자 1명과 소양인 판정을 받았으나 TS-QSCD의 체질은 태양인으로 나온 대상자 1명과 1단계 오류자 9명 등 총 11명을 제외한 149명을 대상으로 일치도 검정(Kappa Indices)을 통하여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appa Indices는 0.64로 비교적 일치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Table 5).

4) TS-QSCD의 내용 및 변별도

본 연구에 사용된 TS-QSCD의 세부 문항별 분석 결과 1단계에서 容貌詞氣에 관한 내용은 4문항, 性質材幹에 관한 내용은 16문항, 恒心에 관한 내용 1문항, 體形氣像에 관한 내용 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2단계 B문항에서 病證에 관한 내용 9문항, 性

고, 2단계 C문항에서는 性質材幹에 관한 내용 6문항, 體形氣像에 관한 내용 1문항, 病證에 관한 내용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 문항의 경우 주로 性情에 바탕을 둔 性質材幹 문항이 많으며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는 2단계 B문항에선 病證에 관한 문항이 많고 소양인과 태양인을 가리는 2단계 C문항에서는 태양인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 많다.

1단계 문항에서의 체질 변별도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검정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P값은 0.05이하로 A10, A12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다. A10 문항의 경우 정기를 묻는 문항으로 양인인 태양인과 소양인은 각각 ‘雄’이 되려하고 ‘外勝’하려고 하므로 이를 ‘남의 일에도 잘 나선다’ 라고 표현한 문항이며 A12문항의 경우 인사에서 능·불능을 안신과 점인으로 나누어 이중 점인은 타인과 접촉하는 상황에서 태양인은 교우에 능하고 소양인은 사무에 능하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개인적인 유희리만을 따져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때 태양인과 소양인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인 교우나 사무에서 능하므로 이를 ‘옳다고 생각하면 손해 보는 것도 마다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문항이다. 두 문항 모두 양인으로 판정되는 응답자들이 ‘아니오’ 항목에 오히려 응답을 많이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개인의 성장과는 별개로 남의 일에 개입하거나 또는 이로

Table 5. The Concordance Comparison of Real Sasang Constitution between Questionnaire Sasang Constitution

		TS-QSCD 체질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계
실제 체질	태음인	56 (84.85%)	7 (17.95%)	11 (25%)	74 (49.66%)
	소음인	5 (7.58%)	27 (69.23%)	1 (2.27%)	33 (22.15%)
	소양인	5 (7.58%)	5 (12.82%)	32 (72.73%)	42 (28.19%)
계		66 (100%)	39 (100%)	44 (100%)	149 (100%)

* Kappa Indices: 0.64

質材幹에 관한 내용 5문항, 體形氣像에 관한 내용 3문항, 容貌詞氣에 관한 내용 1문항으로 구성되었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 등을 꺼리는 개인주의적인 세태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The First Step - A Questionnaire.

번호	문항	분항범주	변별도 ^{a)}	체질척도
A1	당신의 눈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① 눈빛이 강하다. 눈자위가 맑다. 눈초리가 올라갔다. 눈꺼풀이 얇다. 눈매가 날카롭다. ② 눈빛이 순하다. 눈자위가 흐리다. 눈초리가 내려갔다. 눈꺼풀이 두껍다. 눈매가 부드럽다.	容貌詞氣	‡	① 양인 ② 음인
A2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① 걸음이 느린 편이다. 안전하게 걷는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② 걸음이 빠른 편이다. 꼴꼴하게 걷는다. 고개를 들고 멀리보며 걷는다.	容貌詞氣	‡	① 양인 ② 음인
A3	당신의 목소리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① 크고 우렁차다. 높다. 맑다. 밝다. 카랑카랑하다. ② 작고 힘이 없다. 묵직하다. 탁하다. 어둡다. 부드럽다.	容貌詞氣	‡	① 양인 ② 음인
A4	당신의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은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① 밝다. 시원시원하다. / 날카롭다, 예리하다. ② 집잖다. 무게 있다. / 부드럽다. 순하다.	容貌詞氣	‡	① 양인 ② 음인
A5	대화할 때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주로 할말이 있어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생각나는 말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곧바로 말하는 편이다.	性質材幹	‡	① 음인 ② 양인
A6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온순하고 꾸밈이 없지만 게으른 경향도 있다. ② 민첩하고 용감하지만 경솔한 경향도 있다. ③ 의젓하고 무게 있지만 무뚝뚝한 경향도 있다. ④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지만 남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다.	性質材幹	‡	① 소음 ② 소양 ③ 태음 ④ 태양
A7	대인관계에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성질이 모나지 않고 유순하며 다투기를 싫어한다. ② 매사에 절도가 있고 분명하여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대중 넘기지 않는다. ③ 엄숙하고 무게 있게 행동하며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걸린다. ④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귈다.	性質材幹	‡	① 소음 ② 소양 ③ 태음 ④ 태양
A8	일처리에 있어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인다. ② 하던 일을 마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쉽게 시작하지 않는다. ③ 이것저것 일을 만들다보니 마무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④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性質材幹	‡	① 태양 ② 태음 ③ 소양 ④ 소음
A9	당신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①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겁난다. ② 걸음으로는 화려하나 내실이 없다. ③ 너무 자기 멋대로만 하는 편이다. ④ 너무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다.	性質材幹	‡	① 태음 ② 소양 ③ 태양 ④ 소음
A10	남의 일에도 자기 일처럼 잘 나서는 편이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	① 양인 ② 음인
A11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사람을 사귀에 있어 붙임성이 좋은 편이다. ② 붙임성이 없어서 사람을 사귀기가 힘들다.	性質材幹	‡	① 양인 ② 음인
A12	옳다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	① 양인 ② 음인
A13	남에게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	① 음인 ② 양인
A14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감정 표현이 다소 느리고 우회적이다. ② 감정 표현이 다소 즉각적이고 직설적이다.	性質材幹	‡	① 음인 ② 양인

A15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 ②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말(행동)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性質材幹	‡	① 양인 ② 음인
A16	평소의 심리상태에서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소심하고 마음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② 일을 시작해 놓고 나서 그 일이 잘못될까 두렵다. ③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이 어찌될까 겁난다. ④ 항상 마음이 급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恒心	‡	① 소음 ② 소양 ③ 태음 ④ 태양
A17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 ② 바른 소리를 잘 한다.	性質材幹	‡	① 음인 ② 양인
A18	다음 중 당신은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②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③ 밖으로 나돌아 다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性質材幹	†	① 양인 ②③ 음인
A19	다음 중 당신은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① 평상시 체중변화가 많은 편이다. ② 체중 변화가 별로 없는 편이다.	體形氣像	*	① 음인 ② 양인
A20	당신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쾌활한 ② 평온한 ③ 몰두하는 ④ 설득력이 있는	性質材幹	‡	①④ 양인 ②③ 음인
A21	당신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사교적인 ② 순응하는 ③ 끈기있는 ④ 의지가 강한	性質材幹	‡	①④ 양인 ②③ 음인
A22	당신의 단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시끄러운 ② 게으른 ③ 보수적인 ④ 주장하는	性質材幹	‡	①④ 양인 ②③ 음인

a) *는 유의도 수준 P<0.05, '†'는 P<0.01, '‡'는 P<0.001, '§'는 P>0.05(not significant)

일치도 검정(Kappa Indic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TS-QSCD 예비 시험을 통해 변별도가 높아 판정방법에 이용되었던 A5, A15, A21번 문항은 Kappa Indices가 각각 0.69, 0.57, 0.73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A6번 문항이 높은 통계적 유의성과 Kappa Indices가 0.74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Table 6).

마찬가지로 2단계 B문항에서 Chi-square검정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P값은 0.05이하로 B4, B8, B9, B10, B14, B16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변별도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문항으로 판명되었다. 일치도 검정(Kappa Indices)을 통해 분석한 결과 TS-QSCD 예비 시험을 통해 변별도가 높아 판정방법에 이용되었던 B5, B7번 문항은 Kappa Indices가 각각 0.28, 0.44로 체질과의 일치정도는 판명하기 어려웠으나 B12번 문항은 Kappa Indices가 0.64로 상대적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Table 7).

2단계 C문항은 실제 체질과 TS-QSCD 체질이 일치한 경우가 없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Table 8).

Ⅲ. 考 察

1. 기존 설문지의 문제점 및 2단계 설문 방식의 필요성

현재 체질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법 중 설문지를 통한 체질진단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QSCC II이다. 하지만 최근 QSCC II의 체질진단정확률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QSCC II의 개선과 새로운 설문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등¹⁴은 'QSCC 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 연구'에서 QSCC II의 121개 문항 중에서 체질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은 66 문항이고 나머지 55 문항은 통계적 유의성 Table 7. The Second Step - B Questionnaire.

번호	문 항	문항별 판정도
B1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상쾌한 경우가 많다.	0.64

	① 예	② 아니오			
B2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편이다.(몸만 먹어도 살이 찐다.) ① 예	② 아니오	體形氣像	‡	태음
B3	수박이나 참외를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	소음
B4	어릴 때부터 육심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	태음
B5	아랫배가 항상 차가운 느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	소음
B6	땀을 많이 흘리면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	소음
B7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이루는 편이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	태음
B8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	태음
B9	평상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	태음
B10	평소에 겁이 많고 잘 놀라는 편이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	태음
B11	손발이 차고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	소음
B12	당신의 체격에 가까운 것은? ① 체격과 골격이 큰 편에 속한다. ② 체격과 골격이 작은 편에 속한다.		體形氣像	‡	① 태음 ② 소음
B13	당신 몸의 피부(살)에 가까운 것은? ① 피부가 얇고 연약하다. ② 피부가 두텁고 단단하다.		體形氣像	‡	① 소음 ② 태음
B14	다음 중 당신과 가까운 것은? ① 밥을 빨리 먹는 편이다. ② 밥을 느리게 먹는 편이다.		性質材幹	§	① 태음 ② 소음
B15	참을성이 많은 편이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	태음
B16	몸이 안 좋을 때 찬물을 못 마신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	소음
B17	다음 중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속이 불편해도 잘 먹을 수 있다. ② 음식을 먹을 때 늘 소화에 신경 쓰는 편이다.		病證	‡	① 태음 ② 소음
B18	당신의 태도는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의젓하고 무게 있다. ②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容貌詞氣	‡	① 태음 ② 소음

a) *는 유의도 수준 P<0.05, †는 P<0.01, ‡는 P<0.001, §는 P>0.05(not significant)

이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세 체질에서 모두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15개 문항, 두 그룹 간 유의성 있는 응답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51개 문항이라고 하였다. 비슷한 연구에서 김 등⁶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문항을 75개 문항이라 하였고 가중점수와 새로운 판별식을 QSCC II에 적용하여 본 결과

Table 8. The Second Step - C Questionnaire.

번호	문 항
C1	일처리에 있어서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남들이 뭐라 하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려서지 않고 밀어붙인다.

	② 이것저것 일을 만들다 보니 마무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C2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② 남을 의식하지 않고 너무 자기 멋대로만 하는 편이다.	性質材幹	① 소양 ② 태양
C3	당신의 성격에 대하여 고칠 점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소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남들과 잘 부딪힌다. ② 과시욕으로 인해 실속없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다.	性質材幹	① 태양 ② 소양
C4	평소의 심리상태에서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이상적이고 의욕이 앞선다. ② 현실적이고 명예욕이 많다.	性質材幹	① 태양 ② 소양
C5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크다. ① 예 ② 아니오	體形氣像	① 태양 ② 소양
C6	아무 이유 없이 음식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① 태양 ② 소양
C7	아무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① 태양 ② 소양
C8	일상생활의 개인적 행복보다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나에게서 더욱 중요하다. ① 예 ② 아니오	性質材幹	① 태양 ② 소양
C9	4~5일 정도 대변을 못보는 경우가 있으나 크게 불편하지 않다. ① 예 ② 아니오	病證	① 태양 ② 소양
C10	당신의 태도는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② 민첩하고 융감하다.	性質材幹	① 태양 ② 소양

* 2단계 문항(C문항)의 경우 실제 체질과 TS-QSCD 체질이 일치한 사례가 없어 변별도 등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진반적인 평균 진단율이 61.8%라 하여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단순한 문항의 수정이나 판별식의 개선 만으로는 진단정확률을 높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박 등¹²은 이제까지의 설문지 분석방법에 한계를 실감하고 새로운 통계분석방법인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하여, 체질을 변별하기에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16개 문항과 21개의 끝마디로 구성된 의사결정나무를 도출하게 되었다. 박 등¹²에 의하면, 이전 설문지들의 판별방식이 판별식(판별함수)을 이용한 모수적 통계방법이었다면 의사결정나무법은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법 중의 하나이며, 모수적인 방법들은 모집단의 자료가 특정 분포, 예를 들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의사결정나무방식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체질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과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방법이 진단정확률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구조에 사용되는 기본 설문 문항의 진단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 한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첫 번째 마디에 배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박 등¹²에 의해 제시된 나무구조에 의하면 가장 짧은 경로를 거쳐 체질진단이 되는 경우는 4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 경우 4개의 문항만 가지고 체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해당 문항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만 하는데 여타 연구 자료들을 보면 이 문항들의 신뢰도가 기대치만큼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TS-QSCD의 2단계 설문방식은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체질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나무법과 흡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단계에서 22개의 문항으로 음인과 양인을 가리고 2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나무법의 소수의 문항으로 체질을 판정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상체질에 대한 규정은 『東醫壽世保元』의 원문에 기초한다. 따라서 사상체질 진단용 설문지의 문항을 만들 때는 그 응답이 반드시 문항에서 요구하는 체질과 일치해야 된다는 기대치가 있다. 이것은 MMPI¹⁾나 MBTI²⁾ 등 성격심리요인 분석용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 프로그램들은 대개 어떤 문항에 대한 모수적 통계분석방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경향성을 판별방정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정의나 규정에 관계없이 귀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체질 진단 목적의 설문지인 경우 귀납적이고 통계적인 결과가 비록 유의성이 있다 할지라도 『東醫壽世保元』의 체질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문지 연구에서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와 실제 응답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문항 자체가 원문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표현인 경우와 응답자가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의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체질 설문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문항의 개선 쪽에 연구의 비중을 두고 후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가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의 예를 들면, QSCC II의 4번 문항, 즉 體形氣像을 묻는 문항에서 “① 목덜미 부위가 잘 발달하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② 가슴 부위가 잘 발달하고 엉덩이 부위가 빈약하다. ③ 허리 부

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 부위가 빈약하다. ④ 엉덩이 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 부위가 빈약하다.” 라는 항목이 원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긴 하지만 체질 진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높은 체질 일치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 의하면 이 중에서 오직 소음인 척도인 ④번만이 변별도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소음인이 아닌 다른 체질도 상당수 이 보기 문항을 선택하였다⁶⁾. 이는 응답자가 자기의 체형에 대해 제 3자나 전문가가 보는 것과는 다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體形氣像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심성에 대한 판단은 더욱 애매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판단 및 응답의 모호성이 문항의 부정확한 표현과 어우러진다면 진단정확률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항 분석의 결과들을 보면 응답의 유형이 분산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신 등¹⁶⁾의 연구에서 사용된 ‘테스트용 설문지’ 10번 문항, “당신의 기질(스타일)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①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하다. ② 대가 세며 어지간해선 기죽지 않는다. ③ 마음먹은 일은 이를 때까지 집요하게 한다. ④ 얌전하고 단정하며 침착하다.”라는 문항은 性質材幹을 묻는 문항인데, 분석 결과 태음인은 ③번(35.2%)과 ④번(30.5%)에 주로 응답하였고 소음인도 ③번(20.5%)과 ④번(61.4%)에 주로 응답한 반면 소양인은 주로 ①번(24.0%)과 ②번(30.0%)에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른 문항의 분석 결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응답에 있어서 陽人은 陽人끼리 陽人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모이고 陰人은 陰人끼리 陰人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모이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명확하게 2단계로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문항의 불명확성과 응답의 모호함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容貌詞氣 부분에서는 응답의 모호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기의 용모에 있어서 주변의 평가와는 다른 주관적 시각을

1) MMPI: MMPI는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의 약어로 미네소타대학의 Hathaway와 McKinley가 오랜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정신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제작한 질문지형 심리검사이다. 비정상 행동의 종류를 측정하는 10가지 임상척도와 그 사람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4가지 타당도 척도에 따라 해석된다.

2) MBTI: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어로 융(C.G.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검사이다. 브릭스와 마이이 모너에 의해 개발되어 마이어브릭스 성격진단 또는 성격유형지표라고도 한다.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 문항을 통해 각자가 인식하고 판단할 때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낸 뒤, 그 경향들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하는 검사이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눈에서 나타나는 느낌들은 『東醫壽世保元』에 네 체질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후대의 연구자들이 제시해 놓은 기준도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를 네 체질 각각의 특징으로 묻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응답자 또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陽人과 陰人으로 크게 묶어서 문항을 만들면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TS-QSCD에서는 1단계의 A1~A4 문항들이 容貌詞氣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적용 결과 문항의 변별도에 있어서 모두 유의성이 있었다.

한편 기존 방식의 설문지의 문제점 중 또 한 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밝혀진 문항에 대해서는 비록 그 문항이 『東醫壽世保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QSCC II의 21번 문항,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은 태음척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의 ‘長於成就’라는 태음인 性質材幹의 해석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김 등⁶의 연구에 의하면 태양인과 소양인 및 소음인 간에 변별도가 약간 있을 뿐 태음인의 변별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문항을 계속해서 태음척도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TS-QSCD에서는 동일 문항을 태음인과 소음인을 구별하기 위한 문항(B7)으로 하여 적용해 본 결과 문항의 변별도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문항이 네 체질 모두에게 물어볼 때는 태음척도로서 유의성이 없으나 2단계 방식으로 태음인과 소음인만을 가리기 위해 사용할 때는 유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2. 문항의 구성 및 배경

TS-QSCD의 문항은 1단계 문항에서 총 22문항 중 性質材幹 16문항, 容貌詞氣 4문항, 體形氣像 1문항, 恒心 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病證에 관한 문항은 없었다. 2단계 B문항에서는 총 18문항 중 病

證 10문항, 性質材幹 5문항, 體形氣像 2문항, 容貌詞氣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단계 C문항에서는 총 10문항 중 性質材幹 6문항, 病證 3문항, 體形氣像 1문항이었다.

김 등¹⁷은 QSCC II의 문항 중에서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모, 심성, 병증에 해당하는 85문항을 선택하여 체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체질진단 기준의 중요도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은 심성 항목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은 외모 항목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체질변수 문항의 신뢰도는 네 체질 모두 심성>외모>병증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태양인 문항 중 외모 문항 응답률이 오히려 태음인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의 외모와 심성 문항은 소양인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병증 문항은 오히려 태양인이 많이 응답하였고, 태음인의 외모와 병증 문항은 태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심성은 소음인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리고 소음인 문항에서는 외모, 심성, 병증에 관한 문항 모두 소음인이 높게 응답하여 소음인 문항이 가장 신뢰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TS-QSCD의 1단계 문항, 즉 陽人과 陰人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외모와 병증보다는 심성에 관한 문항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 의하면 심성은 性質材幹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性質材幹은 사상인의 각기 다른 性情 및 性氣와 情氣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상인의 性情은 事心身物의 四象 개념에 기초한 哀怒喜樂의 개념으로 哀怒之氣는 陽氣, 喜樂之氣는 陰氣에 해당한다. 그리고 哀怒之氣는 相成하고 喜樂之氣는 相資하는 관계로 哀性이 극하면 怒情이 동하고 怒性이 극하면 哀情이 동하며 喜性이 극하면 樂情이 동하고 樂性이 극하면 哀情이 동한다³⁾. 따라서 哀性이 遠散하고 怒情이 측급한 태양

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 怒情動 怒性極則 哀情動 樂性極則 喜情動 喜性極則 樂情動

인과 怒性이 宏抱하고 哀情이 촉급한 소양인은 크게 보아 같은 陽人의 성정으로 묶을 수 있고, 喜性이 廣張하고 樂情이 촉급한 태음인과 樂性이 深確하고 喜情이 촉급한 소음인은 크게 보아 같은 陰人의 性情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단계의 陽人과 陰人을 구분하는 문항에서는 性質材幹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 등¹⁸은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에서 성격요인검사 16PF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태양척도와 소양척도가 외향적 반응을 나타내며 태음척도와 소음척도는 내향적 반응을 나타내었고 태양집단은 외향적·자기애적 성격특징을 가지고, 소양집단은 두드러진 외향적, 태음집단은 내향적 및 감추어진 불안감, 소음집단은 내향적 및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심성적인 측면에서 陽人과 陰人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조 등¹⁹의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 16PF, 성격유형 MBTI와의 비교분석'에서도 성격유형 측면 등에서 陽人과 陰人이 대별되는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TS-QSCD의 문항 중 1단계의 陽人과 陰人을 가리는 문항에서 총 22문항 중 性質材幹에 관련된 문항이 16개를 차지하여 이와 같은 배경과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1단계의 문항에서 容貌詞氣와 관련된 문항이 4개인데,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하는 容貌詞氣는 얼굴의 형태학적 모습이나 목소리의 특성보다는 性情을 바탕으로 하는 인상이나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소양인의 '剽銳好勇', 태음인의 '起居有儀而修整正大', 소음인의 '體任自然而簡易少巧'⁴⁾ 등은 내재적 性情이 겉의 인상이나 태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상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容貌詞氣에 해당하는 문항들도 性質材幹과 마찬가지로 陽人과 陰人을 가리는 1단계의 문항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 연구의 TS-QSCD 1단계 22문항 중 4개

를 차지하고 있다.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는 2단계 B문항에서는 총 18문항 중 病證에 관한 문항이 9개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에서는 “태음인과 소음인의 체형이 서로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울 때 병증을 비교하여 관찰하면 가릴 수 있다⁵⁾.”고 하여 병증의 각각 다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단계 B문항에서 病證 관련 문항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

한편, 體形氣像에 관한 문항 B12에서 '체격과 골격이 큰 편이다'는 태음척도, '작은 편이다'는 소음척도이다. QSCCⅡ에서 이 문항은 네 체질 중 태음인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변별도를 보이는 문항으로 평가되어 왔다⁴⁾. 그런데 김 등¹⁷의 연구에서 태음인이 외모 문항에서 태양인의 문항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陽人들은 배제하고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는 문항으로 적용해보았고, 그 결과 문항의 변별도가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Kappa Indices 0.64).

이 등¹¹은 지금까지의 사상체질진단용 설문지 연구의 대부분에서 태양인 집단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태양척도의 유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TS-QSCD의 C문항에서는 태양인을 소양인과 가리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두 체질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항을 압축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

태양인은 '恒欲進而不欲退'하는 性氣와 '恒欲爲雄而不欲爲雌'하는 情氣, 그리고 情氣의 조절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放縱之心, 恒心인 急迫之心²⁰⁾ 등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性情의 양적인 속성 중에서도 주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직진성과 과감성'을 특징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소양인은 '恒欲舉而不欲措'하는 性氣와 '恒欲外勝而不欲內守'하는 情氣, 그리고 情氣의 잘못할 때 드러나는 偏私之心, 항심인 懼心²⁰⁾ 등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性情의 양적인 속성 중에서도 주로 '주위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외향성과 과시성'을 특징으로

4)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少陽人 體形 上實下虛 胸實足輕 剽銳好勇 ... 太陰人 容貌詞氣 起居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 容貌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少巧

5)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陰少陰人 體形或略相彷彿 難辨疑似而 觀其病證則 必無不辨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체질간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性質材幹에 관련된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病證에 대한 문항은 주로 태양인의 특이병증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3. TS-QSCD의 평가 결과

체질이 판정된 160명을 대상으로 TS-QSCD를 작성하게 하여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각 문항에서 체질 간 변별도가 높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던 문항은 태양인이 일치하는 사례가 없어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던 2단계 C문항(10문항)을 제외하고 총 40문항 중 32문항이었다.

1단계 문항의 경우 전체 22문항 중 性質材幹과 恒心 등 심성적 요소를 묻는 문항이 17문항으로 1단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성적인 요소는 다소 주관적이며 제 3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가 나는 등 체질진단의 한 기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연구²¹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陰人과 陽人만을 나누는 심성의 대별되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응답의 유의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1단계 22문항 중 유의수준 0.001이하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1, A13, A14, A15, A16, A17, A20, A21, A22번 문항으로 총 18문항이며, 유의수준 0.01이하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A18번 문항, 유의수준 0.05이하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A19번 문항이었다(Table 6).

2단계 B문항의 경우 전체 18문항 중 病證에 관한 문항이 9문항으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단계 B문항의 총 18문항 중 유의수준 0.001이하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B1, B2, B7, B12, B13, B17, B18번 문항으로 총 7문항이며, 유의수준 0.01이하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B5, B11번 문항, 유의수준 0.05이하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문항은 B3, B6, B15번 문항이었고, B4, B8, B9, B10, B14, B16번 문항은 체질 판정에 유의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Table 7).

체질 간 변별도가 높았던 문항들은 문항적합도 및 신뢰도를 측정하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A10, A12, B4, B8, B9, B10, B14, B16번 문항 등 유의성이 떨어지는 문항은 원인 분석을 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東醫壽世保元』에 의거한 문항의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박 등²¹에 의하면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QSCCⅡ는 사상체질전문의와의 일치도가 51%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김 등⁶은 QSCCⅡ에서 가중점수와 새로운 판별식을 적용한 결과 평균 진단율이 61.8%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김 등²²은 QSCCⅢ도 또한 평균 진단율이 53.9%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TS-QSCD의 전체 평균 체질진단율은 71.87%로 앞서의 연구보다 진단정확률이 높으며 이것은 비슷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 설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응답자의 혼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TS-QSCD를 통한 체질 진단 실시 결과 태음인은 84.85%가 일치하였고, 소음인은 69.23%가 일치하였고, 소양인은 72.73%가 일치하였다. 그러나 태양인의 경우에는 태양인 집단 수가 너무 적고 일치하는 사례가 없어 태양인 진단 기준을 보완하여 2단계 C문항의 보강과 함께 소양인과 태양인을 나누는 판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단계에서 오류 처리되어 2단계 문항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5.63%로 나타났는 바, 비전형적인 체질응답자를 구제하기 위한 변별력이 높은 문항의 보강 또는 판정 방법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진단정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東醫壽世保元』에 근거하여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病證 등 사상체질진단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문항의 표현 및 해석에 있어 설문 응답자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TS-QSCD는 이러한 점을 2단계 설문 방식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객관성과 재현성을 더 갖추고 진단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치화할 수 있는 體形氣像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응답자의 관점에서가 아닌 객관적 體形 데이터를 TS-QSCD에 추가한다면 체질판정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160명으로 표본 집단의 수가 적으며 또한 학생 집단의 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연령층이 20대에 몰려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TS-QSCD의 연령별, 성별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지금까지 연구된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지금까지 나온 설문 기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S-QSCD)’를 개발하게 되어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체질이 판정된 환자 및 우석대학교 재학생 등 160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상의학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판정한 체질과 TS-QSCD에 의해 진단된 체질을 비교했을 때 태음인의 70.00%가 일치하였고, 소음인이 81.82%, 소양인이 69.57% 일치하였다.

전체적으로 160명의 대상자 중 체질이 일치하는 경우가 115명으로 71.87%의 일치율을 보였고 1단계에서 오류로 처리된 경우는 5.63%이었다.

2. TS-QSCD의 2단계 설문방식은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체질을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나무법과 흡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단계에서 22개의 문항으로 陰人과 陽人을 가리고 2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의사결정나무법의 소수의 문항으로 체질을 판별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TS-QSCD의 문항은 1단계 A문항은 주로 性質材幹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陽人과 陰人을 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2단계 B문항은 주로 病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태음인과 소음인을 가리며, 2단계 C문항은 性質材幹 및 病證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태양인과 소양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체형을 실측한 객관적 데이터를 TS-QSCD에

추가하여 적용한다면 체질진단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리라 기대되며, 향후 TS-QSCD의 연령별, 성별 표준화 작업과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 參考文獻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151-176.
2.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1987;8(1).
3.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61-80.
4.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1):186-246.
5.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변증내용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5;7(2):89-100.
6. 김영우, 이의주, 최선미, 김종화, 정성일, 이현민, 김종원. 사상체질진단을 위한 사상체질분류검사지Ⅱ(QSCCⅡ)의 연구(문항분석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1-21.
7. 김상복,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진단검사(QSCCⅡ)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94-103.
8. 장현록,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5-50.
9. 나대운.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에 대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김영우, 김종원.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설문지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51-183.
11. 이의주, 김종원, 박창규, 유정희, 김규곤, 최선미. 체질분류설문지(자기보고식)의 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79-86.
12. 박은경, 이영섭, 박성식. 의사나무결정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

- 지. 2001;13(2):144-155.
13. 박성식, 최재영. 의사나무결정법을 이용한 설문지의 응답특성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77-186.
 14. 박은경, 박성식. QSCC 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 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78-93.
 15. 김태연, 유정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Upgrade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27-38.
 16. 신동윤, 송정모. 사상체질설문지 문항의 해석 및 적합성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74-95.
 17. 김영우, 이의주, 최선미, 정성일, 이영옥, 조훈석, 김종원. 사상체질진단기준(외모 심성 병증)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3):1-10.
 18.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검사-16PF와의 비교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87-103.
 19. 조용태,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16PF), 성격유형(MBTI)와의 비교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994;5(1):21-39.
 20.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개정증보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97-110.
 21. 박혜선, 주종천, 김주한, 김경오.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35-44.
 22. 김태균, 김종원. 설문지를 통한 사상체질의 임상적 분류방안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73-185.